

너무 큰 리더십 공백... 다자 구조 형성 가능성

■ 호남 정치판도 어떻게 바뀔까

민주당 영향력 축소·정치 공백 전망 내년 지방선거 무소속 강세 추측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민주당과 호남 정치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반세기에 가깝게 호남 정치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실질적인 리더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퇴임 이후 일정 부분 퇴조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서거에 따른 정치적 공백은 민주당 등 야권 진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일단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상당기간 정치적 공백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처럼 도전과 응전으로 정치력을 키우며 호남과 서민의 한을 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만한 그릇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DJ 퇴임 이후 안주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지역 정치권은 다자 구도로 형성될 전망이다. 정치적 리더가 급부상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정치력을 확보한 의원들이 당분간 지역 정치권을 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당장, DJ의 복심으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정치력이 검증된 박지원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 행정 분야 전문가인 최인기 의원, 민주당의 정책통인 김효석 의원 등이 지역 정치권의 좌장 역할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당권 도전 등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계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 의원들은 정치적 도전보다는 지난 대선 과정과 같이 유력 대권 주자와의 짝짓기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DJ와 민주당의 그늘에



민주당 정세균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로 영정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 안주했던 지역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자산 없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J의 서거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J의 서거는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조건 민주당’보다는, 후보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소속이나 진보 정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세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DJ의 서거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싹트려 없는 공천을 할 경우 무소속 후보들이 크게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조기 등원 계기 될지 주목

■ 향후 정국 향배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가 민주당 조기 등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까.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장외투쟁에 몰입했던 민주당에 또다시 조기 등원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등원의 명분이 없어 조기 등원이 어려웠지만 DJ 서거가 이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DJ 서거가 장외 투쟁의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 등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단 장례식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문상객을 받는 등 장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애도를 표시하고 “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하겠으며,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잘 처신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상주 자격으로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역사박물관 분향소는 동교동계와 국민의 정부 출신들이 조문객을 맡기로 역할이 분담됐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등원에 대한 각종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J 서거로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장외 투쟁보다는 국회 내 투쟁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단결이나 분열이나 중대기로

■ 민주진영의 미래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로 민주진영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낸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김 전 대통령을 잃은 상황에서 민주진영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구심점을 한꺼번에 잃게 됨에 따라 민주진영은 잠시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민주진영에 있어 DJ는 반독재 투쟁과 사회민주화, 남북화해 등을 위해 헌신한 상징적 존재였던 만큼 그의 ‘상실’로 민주개혁 세력은 큰 자산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민주진영은 향후 정국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민주진영이 곧바로 총력에서 벗어나 DJ의 서거를 재부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은 잇따른 두 기동의 사실이 오히려 민주세력을 뭉치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김 정치”식의 폐단을 견어냄으로써 민주진영의 ‘정치 소프트웨어’가 한 차원 선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여야 정치권의 큰 승부처로 꼽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수렴될 것으로 보이며 이 선거를 전후해 민주진영의 ‘새관자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DJ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지난 6월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합해 민주주의 후퇴 등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위기에 처한 민주진영에 제시된 일종의 좌표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트 DJ’ 누가 될까

정세균·정동영·박지원 등 거론... 내년 지방선거 전후 명료화

진보진영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포스트 DJ’ 역할을 놓고 야권 내부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포스트 DJ’를 노리는 그룹으로는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DJ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도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김근태 전 장관,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정치 지형 등을 고려할때 아직 유동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이후 의원

직을 던지고 장외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포스트 DJ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DJ를 병문안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DJ 때문”이라며 “DJ는 정치적 사부였다”고 DJ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출하며 DJ의 후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DJ의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면서 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지난 재보선에 무소속 출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손 전 대표도 DJ 병문안을 통해 그동안의 침체에서 깨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야권 일각의 거부감 해소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DJ의 복심으로 정치력을

